4강 : 매춘과 섹슈얼리티

○ 매춘은 필요악인가?

「풍속의 역사」를 쓴 에두아르트 푹스는 "매춘제도란 사유재산제를 기반으로 하는 일부일처제와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고 했다. 일부일처제는 사회 인습적이고도 계약적인 면이 강한 결혼제도이다. 그만큼 부부간의 성적 책임과 순결성을 강조하는 면이 강하게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부부간의 성 발란스가 깨지면 매춘을 발생시킬 요소도 많은 결혼제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매춘이란 일부일처제의 아래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필요악인 셈이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결혼과 매춘의 역사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매춘이 성에 대한 음탕한 유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편견만 배제한다면, 매춘은 결혼제도의 발달과 함께 시작된 인류 성문화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자유로운 짝짓기 수준의 대우혼제에서는 매춘이 드물다가 일부일처제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매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도 결혼제도와 매춘이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푹스의 이론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먼저 일부일처제가 정착되었으므로 매춘도 일본보다 빨리 시작되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매춘의 역사가 일본보다 먼저 시작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매춘이 발달한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매춘이 시작되었고 그 이전에는 매춘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편이다. 특히 성적 규제가 심했던 조선시대에는 매춘이라는 것이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연구자들도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비록 금지는 되었지만, 엄연히 매춘이라는 것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매춘과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이고도 제도화된 장치들이 있어서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다만 남성들에게만 편중된 성적 자유함에서 비롯된 안정된 결혼생활이었다는 것이 문제일 뿐이었다.

여성들이 결혼을 아주 가치있다고 생각할수록 매춘의 발생률은 높아진다고 한다. 더욱이 일부일처제뿐 아니라 일부다처제 또한 매춘 발생률을 억제하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일부다처제는 남성을 합법적인 성적상대없이 방치해 두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통시대의 매춘은 어떤 형태이건 결혼제도를 보완해 주는 장치로서 필요했고, 한편으로 혼자사는 여성들의 사회 경제적 자립의 수단이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서양과 중국, 일본에서는 '유곽'이라는 매춘지역을 아예 지정해 놓고 매춘행위를 인정해 주었다.

다른나라들이 매춘행위를 인정해 준 반면, 조선시대에는 매춘행위가 일체 금지되었다. 매춘은 풍속을 문란시키는 음란한 행위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유교

적 명분일뿐, 실제로는 기녀나 첩과 같은 양성적인 매춘이 제도권안으로 이미 흡수되어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필요성이 덜했을 뿐이었다.

같은 중국측 문헌에 등장하는 '유녀遊女'라고 불리는 고구려 여성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인데, 유녀란 "정해진 남편이 없는 노는 여자들"을 의미한다. 이 유녀들은 소위 남편이외의 여러 남자를 상대하는 여성들을 총칭하여 중국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고구려 사회에서 유녀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필요성에 의해서였다. 자유연애가 만연한 사회라 하더라도 유동인구가 많이 발생하고 정복전쟁이 빈번할 경우, 한 곳에 상주하는 않는 남성들이나 변방의 아내가 없는 군사들을 상대할 매춘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복전쟁이 빈번하였던 삼국시대에 병사들의 위안부역활을 하는 매춘부는 국가에서도 필요했을 것이다. 국가는 이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들일 정도로 공식화했다.
유녀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보이는 것은 아니다. 중국 및 일본에도 우리와 유사한 유녀가 존재했다. 중국에서 유녀의 등장은 우리나라나 일본에 비해 시기적으로 훨씬 올라가고, 일본에서 유녀의 등장은 가장 늦은 10세기 경이다.
일본에서 유녀의 전신은 '유행여부遊行女婦'인데, 이들은 관료대상으로 여흥을 돋구는 일을 했다. 그러나 이들이 성을 처음부터 매매하지는 않았고, 점차 유녀로 변질되면서 본격적인 매춘을 하였다고 한다.
동양 3국 중 매춘이 가장 번성한 것은 중국이었다. 중국에서 매춘은 한나라 때부터 공공연히 퍼져있었는데, 성을 불로불사의 비술로 간주하는 사상이 널리 퍼지면서 성행위가 장려되었다. 당나라 때에는 궁전 일각에 "북곽"이라는 매춘 전용 지역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중국 및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한말 일본에 의해 공창제가 일반화되기 전까지 매춘부는 있었지만, 중국의 "북곽"이나 일본의 "유곽"과 같은 매춘 전용지역은 없었다.

○ 강요받은 매춘

성을 상품화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잠시 접어둔다면, 전통시대에서 매춘은 홀로된 여성들이 먹고 살기위한 경제적 독립의 한 수단이었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이 힘든 시대일수록 매춘은 여성의 독립생활을 가능하게 해 준다.
독신 여성이 경제적인 이유로 매춘부로 전락하는데는 우선 전통시대의 사회적 특성이 한 몫을 거든다. 전통시대에 여성은 가정에 틀어박혀 가사노동을 하는 것이 고작이었고, 할 수 있는 일도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생계를 위해서도 결혼은 필수였다.

그런데 처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해 결혼할 수 없는 처지에 처한 여성이거나, 결혼한 뒤라도 간통이나 이혼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부양해 줄 남자가 없을 경우 여성들에게 생계란 생존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생계를 위한 직업이 없는 시대이다 보니 생존을 위한 직업을 찾게 되고, 비록 경제적 이유가 아니더라도 부정한 여자로 낙인찍히면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없는 전통사회의 구속력 또한 매춘부로 전락하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우리나라에서 정조관념이 희박한 여성으로 낙인찍혀 국가 소속의 매춘부가 되거나 평생 그러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여성들이 속속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고려시대부터이다. 이들은 기녀와 달리 지켜야할 정조를 잃어버린 여성들인 셈인데 그에 대한 형벌로서 매춘을 강요받았다. 고려시대에는 이러한 여성들을 가르켜 '자녀恣女' 또는 '유녀遊女'라고 불렀다.

「고려사」에 의하면, 고려 고종 때 이수라는 자가 처가 죽자 처질부와 간통하다 발각되었는데, 이수는 이 일로 귀양가고 그 질부는 「유녀적」이라는 실행녀 명부에 이름이 올라 매춘부가 되었다. 또한 충정왕 때 익흥군 왕거의 처 박씨가 간음하다 들켜서 신창관의 자녀가 되기도 했다. 종친 출신의 부녀자가 간음하였다하여 신창관의 자녀로 전락시키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형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신창관은 외국 상인들이 내왕하던 곳이었는데, 이곳에서 국가소속의 공창公娼들이 이들 외국 상인들을 접대하였다. 말하자면 자녀는 국가소속의 공창으로서 양가집안의 여성들이 간통을 하였을 때 받는 형벌의 일종이었다.